



송년 좌담회

반추(反芻)! 2009작물보호제 산업

# 농업환경 위기에 공감 도약위한 전화위복 다짐

특히 계절산업인 농약산업은 한 해의 기상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풍을 일궈낸 올해 업계는 기상호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 저조와 맹목적 친환경농법 확산 등으로 인한 약제소비 감소, 반복되는 재고 누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11월 23일 '반추(反芻), 2009작물보호제 산업'이란 주제로 특집 '송년 좌담회'를 갖고 한 해를 반추, 매조지 하며 다음 해를 구상해 보았다. 좌담회에는 협회 운영 4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명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 장 소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의실
- 참석자  
 임필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 동방아그로 전무  
 박완순 운영위원회 위원 · 성보화학 상무  
 정창국 기술위원회 위원장 · 한국삼공 이사  
 이창규 기술위원회 위원 · 경농 수석부장  
 전병철 국제위원회 위원장 · 바이엘 상무  
 김경성 국제위원회 위원 · 동부하이텍 상무  
 이계형 안전사용대책위원회 위원장 · 신젠타 상무  
 민춘기 안전사용대책위원회 위원 · 영일케미컬 부장  
 최운홍 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진행)

## 運營委員會

▲최운홍=연초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폭등과 원부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올 한해 사업을 결산해 본다면?

▲임필훈=금년 한해는 환율 변동 폭이 커 가격이 안정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상 호조 등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저조하여 약제소비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재고 부담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의 내년도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매출의 성장은 신제품 출시 및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이 증가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해였습니다.

▲최운홍=비교적 대풍을 이루어 냈으나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 등으로 기쁨보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또한 업계는 맹목적인 반농약농법 확산과 막연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농약사용량 감소는 물론, 매출액 하락과 시중재고 증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만?

▲임필훈=대풍을 일궈낸 농업인들의 모습에서 기쁨의 표정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풍요속의 빈곤함이랄까요? 농산물 가격 안정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우선 정부와 농가간 정보공유 및 관리, 재배면적, 생산자 표시 관리 등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의 시스템화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성과 무관하게 막연히 잠재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업계가 상호 협조하여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을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매체를 불문한 다양한 홍보를 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도 병해충 발생이 저조하여 약제소비 감소로 시중재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운홍=그동안 일선 영업현장에서의 소량주문이 있을시 부득이 택배로 발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혼적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연초 농약 전용 차량을 이용, 운송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성과와 현황은?

▲임필훈=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문이 사소한 안전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소량 주문한 농약을 택배가 아닌 전용차량으로 운송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용차량을 이용함으로써 혼적에 따른 위험을 없애고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 시 사회문제화를 예단한다는 측면에서 잘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운송비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각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운홍=좁은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 등으로 유통질서가 바로 서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자칫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상생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방안은?

▲박원순=시장의 순기능적 흐름에 역류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잉생산이 유통질서를 혼탁케 하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최종 소비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냉



최운홍



임필훈



박완순

철히 돌아보고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지(陽地)의 시장을 선도하고 선의와 상생의 경쟁만이 유통질서 확립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운홍=무엇보다 출하량 감소로 인한 힘든 한해를 예상해 봅니다. 시중 재고 미소진시 내년에도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며 바람직한 방향은?

▲박완순=좋은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감소로 시중 및 농가보유 재고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보조농약의 수급 또한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급격한 원재수입단가 인상과 원화가치의 하락 등으로 만불득기 제품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당장의 환율안정 요인을 들어 2010년도 출고가 인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여서 전체적으로 큰 부담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정생산량 유지는 물론 상생을 위한 긴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技術委員會

▲최운홍=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약관리법이 전 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만, 특히 농약의 분류에서 '화학농약' 명칭 변경에 대한 진전이 있는지요?

▲정창국=핵심내용은 "관리법 명칭" 변경과 "농약 외품" 제도도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찬반의견이 팽팽하였지만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록 농약이 시대적 문화 차이와 식생활변화로 인해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지만,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길 바랍니다. 식물보호제를 '화학농약' 과 '천연보호제' 로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하며 '화학농약' 은 '화학식물보호제' 로 명명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약외품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집과 실제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된 곳의 이해관계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DIFEU2009

“ 시중 및 농가보유 재고 상당,  
어렵지 않은 해였지만  
가장 힘든 해로 예상, 적정생산량 유지·  
상생위한 긴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



정창국



이창규

▲최운홍=농약 등록은 각사의 매출과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보이지 않는 경쟁부문이기도 합니다. 농약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창국=업계입장에서 농약등록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내 등록평가수준이 OECD기준에 근접해 있다면 사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품목등록여부가 예측가능 하도록 행정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농약등록 평가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평가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최운홍=실용화재단이 정식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약업계와 어떤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창규=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과 직접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산업화 하였지만 앞으로는 실용화재단과 공동개발 또는 산업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창구가 단일화되어 더욱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고 보다 높은 시험연구 성과들이

산업화될 수 있어 업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 2011년부터 유통농약 직권발취 시료를 실용화재단에서 분석, 검사할 것입니다. 직권검사 발취 점수는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통농약의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만큼 농약업계는 실용화재단의 검사결과에 관심이 많을 것이며 올바른 분석법 확립과 표준품 관리 측면에서 상호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운홍=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지 및 면적 변화와 갈색여치,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발생으로 인해 신제품개발 등 사업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등록과 관련된 향후 추진방향은?

▲이창규=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병해충이 문제화 될 때 마다 일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산을 떠는 것 보다는 정부와 농약업계가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 구축 및 병해충 방제약제 직권등록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제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병철



김경성

“ 올바른 소비자 인식 제고  
 시급한 이슈이나 단순한 문제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농약 효능 흥내내려는 유사제품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

고 봅니다. 또한 발생초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신제품 등록절차 간소화 및 등록시험기간 단축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國際委員會

▲최운홍=EU재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EU 및 세계 각국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현황은 어떠하니?

▲전병철=EU 재등록 자진 취하 품목들에 대한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조치에 대해 일본, 대만 및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 재등록은 정기적 과정으로 품목별 자료준비 및 제출 여부는 제품의 상품가치, 즉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도용 제초제들은 EU지역내에서 시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등록을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금년 5월 EU의회가 작물보호제의 등록 승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안전성 확보 명분이 높아져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커진 반면 선택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최운홍=EU재등록 취소 155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전병철=EU 재등록 과정은 각국의 관련 법 범위 내에서 제품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업의 자율적, 핵심적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직시하여 업계의 자율적, 주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혜를 모아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운홍=글로벌 시대에 즈음하여, 미·EU·OECD 등 선진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김경성=외국의 선진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진 외국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수준이었으나 각사마다의 다

AD/EU 2009

른 수준과 종합화되지 못함으로써 더 가치가 높은 정보로 재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정리해서 가치가 높은 정보로 재탄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계 공통의 관심이 되는 정보는 협회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입수, 분류하고 분석해서 가치가 높은 자료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이계형



민준기

▲최운홍=2010년 제26회 3국 자매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회의부터는 관행적이 아닌 등록, 법령, 행정, 안전사용, 국제관련 이슈 중 한 분야를 선정, 중점적이며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3국 합동으로 분과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바 기술 및 국제위원회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보는데?

▲김경성=물론입니다. 기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3국간은 물론 우리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아젠다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기 논의됐던 국가간 등록 자료 상호 인정과 같은 아젠다는 민감한 부분도 있겠으나 업계 공동의 이해가 반영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위원회는 주로 3국 관련 당사자들과의 상호 정보교류 협력과 이와 관련된 조사와 같은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협회의 헌신과 업계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安全使用對策委員會

▲최운홍=「농약 표시기준」이 올해 1월 고시되었고 7월에 개정되었는데, 글씨크기 등 앞으로도 개정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장지 변화가 실수요자

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요?

▲이계형=우선 시행시점이 오래지 않아 소비자의 반응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반응이나 문제점, 개선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라벨의 디자인도 제품 차별화를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전략 기회이므로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환경문제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농도 고희석 제품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데, 이 경우 글씨가 작아지는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표시기준을 좀더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운홍=대농업인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출발점이며 관행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곧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첩경이라 여겨집니다. 과대 허위·광고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황은?

▲이계형=미등록 사항 표기문제와 타사제품에 대한 악성적 루머나 자사제품과의 정당치 못한 비교 광고가 예일 텐데요. 미등록 사항에

대한 광고 및 일선 판촉활동은 민원소지가 많은데다 소면적 작물에 대한 직권시험 기회의 확대 등으로 회사별로 자제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사 제품에 대한 비방이나 비교자료 배포 사례 등은 적지만 완전히 근절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와 사례수집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최운홍=가까운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하여는 학교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미나 개최, DVD 제작, 보급 등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사적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교육비용 부담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요소로 보여 집니다만?**

**▲민춘기=올바른 인식이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소비자 자신이 매일 섭취하는 농산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각종 천연화합물질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과학적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은 농약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 중심의 현행 교육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회원사도 적극 동참,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운홍=안전성은 물론 안전사용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올바른 정보의 보다 신속한 제공을 위한 언론과의 적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민춘기=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마스크에서 농약의 순기능보다 일부의 역기능만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경우 소비자들은 당연히 안전성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매체와 정기적인 교류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친환경적이며 사람이나 작물에 안전성이 높은 농약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도 적극 홍보하여 농약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共通 質問

**▲최운홍=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막연한 불안 불신감은 여전히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모색해야 할 방안은?**

**▲정창국=특정분야를 닦하기에 앞서 진정 우리 업계가 소비자들에게 농약의 안전성을 알리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협회 주관으로 더 많은 분야를 초청, 노력해야 하며 업계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창규=이 문제는 관·산·언 모두의 공**

ADIEU 2009

동책임의식 하에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대중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잔류농약의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걱정되는 농약~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예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전달로 인해 농약이 마치 사회악적인 물질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받을 기회가 없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농약의 올바른 이해”등을 학습과정에 반영한다면 농약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빠르고 좋아질 것입니다.

▲이계형=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는 가장 시급한 이슈이긴 하나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학적 사실을 믿어주지 않으려는 고착화된 사고이며 농약 고유목적과는 다른 사안에 특정농약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류의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운홍=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은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맹신이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사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정창국=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많은 모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자재의 목록공시도 중요하겠지만 제도나 친환경농자재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시된 적용대상에 정확히 사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검증을 위해선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영세한 업체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을 펴면서 자재는 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여 약효와 약해에 대해 검증해야 하고 안전성측면도 좀 더 보완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운홍=농약의 효과를 모방하려는 유사제품들의 과대 허위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 및 업계의 대응방안은?

▲정창국=정부의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사제품들의 과대 허위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협조공조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창규=농약의 효능을 흉내내려는 유사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농약은 효능만을 검증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안전성인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 취급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어 사용자를 유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Y